



“환영합니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현지 실사를 위해 1일 광주를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과 미디어담당관 등 7명이 광주공항공에서 환영 나온 어린이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안은 채 시민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위리작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160명·전남 830명 감축 지역 공직사회 ‘슬렁’

조직개편안 확정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약 1천명의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크게 중요하고 있다. 양 지역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 조정 등 자연 감원 이외에 강제 퇴출 가능성도 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연말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시·도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광주시는 시 본청 60여명·5개 구청 100여명 등 160여명 정도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본청 77명과 22개 시·군 750여명 등 총 830여명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간 위탁이나 부서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유지와 신규채용 자제, 일부 업무의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수가 2002년 말 1천909명에서 2007년 말 2천105명으로 96명 늘었지만 2007년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이 2천960명인 데 비해 실제 운영을 88명 가량 적게 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인력을 연차별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원 1천788명 가운데 4.3% 수준인 77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국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 경우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시기획단과 투자정책관실이 통합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 감축이 진행되면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정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남로로 가자, 열기를 보여주자”



버그 실사단장 “열렬한 환영 감동”

오늘 밤 옛 도청 앞 시민축제 참관

‘2013 U대회 광주로’

“Welcome to Gwangju! We love Universiade!”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의 중대 관문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가 1일 시작했다.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실사단은 1일 오후 1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이어 오후 6시45분께 광주공항에 도착,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4·9면>

광주공항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유치위 관계자, 대학생 등 2천여명의 환영단이 ‘FISU! Gwangju!’를 연호하며 실사단을 뜨겁게 맞았으며, 실사위원들은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버그 단장은 “광주는 인상적이고 사랑스러운 도시 같다”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케발 타머 터키 집행위원은 “이처럼 많은 지역대학생들이 나와 환영해주 놀랐다”고 말했다.

실사단은 이어 FISU 및 U대회 엠블럼과 ‘2013 하계U대회 광주로’ 등의 유치 기원 문구가 도색된 전용리무진버스를 탄 채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광충간 도로~극락교~제2순환도로~두암IC~두암타운4거리를 거쳐 속소인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로 향했다. 실사단 이동로에는 모 두 5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FISU기와 실사단 출신 6개국 국기, 실사단 사진과 환영문구가 담긴 피켓

등을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신양파크호텔에서도 인근 주민과 학생 등 1천여명이 환호와 환영의 노래로 실사단을 맞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시민환영위원회 환영만찬에서 전호중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95% 이상이 대회 유치를 소망하

■오늘의 실사 일정

-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 오전 9시50분
- 광주 인프라 소개 및 실사일정 보고
- 오전 11시30분 DJ센터
- 프레젠테이션 1
- 오후 2시30분 DJ센터
- 박광태 시장 환영만찬
- 오후 6시30분 DJ센터
- U대회 유치기원 시민축제 참관
- 오후 8시20분 옛 도청앞 광장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명 서명운동은 불과 한 달만에 목표치를 넘어

서는 등 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U대회가 교육도시 광주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눈부신 업적을 남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며 각종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한 자력 도시”라며 “이번에도 10만명의 시민지원단과 1천명이 넘는 대학생지원단을 자발적으로 꾸리는 등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U대회 유치를 간절히 열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혁신도시’ 이대통령 입장뉘까?

오늘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릴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정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는 국토해양부가 제기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 왔으나, 이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선 지방경쟁력 강화’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해양관광 규제개혁 등도 건의한다.

정부는 청와대는 이밖에 ▲2013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지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해양관광 규제개혁 등도 건의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새정부 국정과제와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발표한다. /김주경기자 jknews@

청년층 10명 중 6명 ‘백수’

광주·전남지역 20대 취업난 갈수록 심각

올 1분기 현재 광주·전남의 청년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젊은 층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의 경우 경기하강과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은 3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40.7%)에 비해 0.9%p 낮아진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의욕을 접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1분기 39.4%에서 올 1분기 38.7%까지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통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올 1분기 국내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64.7%)에 비해 0.8%p 떨어진 것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치기간 동안 55만 여의와 지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국내정상급 여성골퍼들이 "항공라이너스리CC"에 모인다.

대회명: 2008년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기간: 2008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3일간

주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발행처: 오후 1시 ~ 4시까지 IX PORTS 대청

참가인원: 국내정상급 프로 & 120명

총상금: 2억원 (3월 54일 스포츠포탈레이)

대회지원: 후원기업, 발간간행, 후원기업, 후원단체